



서른한번째 이야기

찾아온 사랑을 찾아 II



금강 하류에 위치한 강경은 근대에 강경 포구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조선 3대 시장의 명성과 영화를 누렸던 곳이다. 일찍이 기독교, 천주교 등의 종교 문화와 함께 상업 교육이 발달했었다. 2017년 11월 4일 두 번째 ‘찾사찾’으로서 온비아 학생들과 BEE가족들이 함께 호남 지방에 이어 전통과 역사가 어우러진 문화 유적지인 호서 지방 순교지를 찾았다.

“하나님, 내 영혼 받으소서!”

11월 4일 아침 8시 30분 날씨가 궂을 거라는 예보와 달리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에 따사로운 햇빛마저 넘실대는 축복을 받으며 우리 일행은 출발하였다. 어느새 추수를 끝낸 넓은 들녘만이 평화롭게 버스 차창을 스쳐갔다. 3시간여를 지나 젓갈로 유명하다는 강경에 도착했다. 강경 장날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고 따뜻하고 포근함마저 들었다. 격동의 세월에 많은 순교자를 낸 곳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그나마 이곳이 옛 조선의 3대 장 중에 하나라는 명성을 볼 수 있는 것은 ‘OO젓갈’이라고 쓴 빛바랜 상호만이 즐비한 상점들이었다.

12시가 훨씬 넘어 예상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일행을 강경제일교회 윤석일 목사님께서 맞아주셨다. 때늦은 점심으로 유명한 강경 젓갈 밥상을 받고 여러 가지의 젓갈을 맛보느라 밥 한 공기를 똑딱 해치웠다.

부랴부랴 목사님을 따라 강경을 서창리 포구마을에 있는 논산 8경 중에 하나라는 강경산 옥녀봉으로 올랐다. 옥녀봉 종턱에는 조선에서 처음 지었다는 ‘ㄱ자 교회’ 터가 흔적만 있었다. 이곳은 충청도 최초로 500명이 모여 만세운동을 한 곳이다. 일본은 한국인의 민족정신을 말살하고 기독교를 박해할 목적으로 문화 정책의 일환인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하지만 강경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최초로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시작하였고, 이현영 목사의 재림신앙 교수로 6.25 동안 중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투옥 및 교단 폐쇄의 만행에도 의연히 신앙으로 대항하였다. 일제는 옥녀봉에 신사를 짓고자 이 교회를 빼앗기 위해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교회를 지키고자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져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지금은 흔적만 남은 교회 터를 왼쪽으로 돌면 향토유적 제38호로 지정된 지병석 집사의 가택이 있다. 이곳 역시 ㄱ자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남녀가 유별한 조선에서 각기 다른 문으로 들어가 마주 보이지 않게 가운데 휘장을 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지병석 집사는 조선시대 말기 강경과 인천을 배 타고 오가며 포목장사를 크게 하던 상인이었다. 그는 1895년 미국 보스턴의 침례교단에서 파송한 파울링 선교사에게 침례(세례)를 받는다. 그 후 1896년 2월 9일에 이곳에서 5명(파울링 선교사 내외, 아만다 가데린 선교사, 지병석 집사 내외)은 첫 주일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이곳은 침례교 국내 최초의 예배지가 되었고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가 태동한 곳이 되었다. 또한 <강경침례교회>의 시작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1899년까지 파울링 선교사가 거쳐하였는데 자녀 3남 1녀 중 장남 고든 파울링이 1899년 사망하여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안장되었다. 그 후 1900년 스태드만 선교사, 1901년-1935년 한국 침례교단을 최초로 조직한 캐나다인 펙웬 선교사가 원산에서 강경을 왕래하며 별세하기 전까지 거쳐했던 곳이다.

내려오는 길에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정방형의 한옥인 북옥교회도 볼 수 있었다. 조선의 문화를 융통성 있게 존중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모습에서 바울이 디도와 디모데에게 한 할례 사건이 생각났다.



오후 3시 강경교회에서 얼마 떨어진 병춘성결교회로 일행은 자리를 옮겼다. 교회 앞에 있는 500년은 됴직한 커다란 은행나무가 인상적이었다. 초등 5, 6학년쯤이나 되는 남자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서 자전거를 타며 즐겁게 놀고 있었다. 은행나무 옆으로 하얗게 양증맞으면서도 순결한 순교관이 있었다. 위층에는 예쁜 교회 카페가 자리 잡았다.

카페에 들어서자 눈에 띄는 66개의 십자가 부조가 있었다. 66명의 순교자를 상징하는 작품이라고 한다. 카페 아래층에는 멋스러운 철제 계단 밑으로 66인의 순교관이 있었다. 원형의 작은 방에는 순교자 66인의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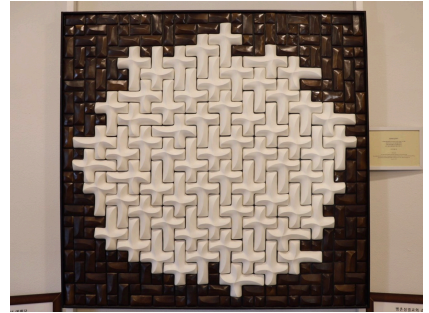
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있었다. 명패 중에는 이름 없는 태아도 있었다. 순간 뭐라 할 수 없는 답답함이 가슴을 누르며 눈물이 앞을 가렸다.

강경교회에서 개척한 병춘 성결교회는 초가 9칸의 교회로 시작하였다. CGN TV에도 병춘 성결교회의 아픈 역사가 방영되었는데 그 당시를 회상해주시던 노미종 권사님께서서는 작년에 94세의 나이로 소천하셨다고 한다. 노미종 권사님의 회상 영상을 보았다. 키가 자그마하시지만 목소리가 까랑까랑하셨다.

“그때 나는 찬송을 부르고 다른 사람들은 북을 치고 팽가리를 치며 노방 전도를 가면 사람들이 구름떼 같이 모여들어 따라다녔어.”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내 노래 소리가 좋아서 따라다녔다는 거야.”

너무나 천진하게 자랑을 자랑인 줄도 모르면서 하시는 노미종 권사님의 영상에 우리 일행은 갑자기 웃음을 터트렸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귀하게 사용하신 그분이 존경스러웠다. 한국 전쟁 중에 북한군이 교회를 폐쇄시켰다가 일시적으로 개방하여 예배에 참석하게 하였다. 성도 수를 알아내기 위한 북한군의 학살 계획인 것을 그때는 몰랐다. 1950년 9월 27, 28일 이들 간 총 교인 74명 중 66명(남 27, 여 39)을 잔인하게 집단 학살했다.



66명의 순교자를 상징하는 십자가 부조

순교자 중 우제학 성도는 일가족 11명이 모두 학살당했다. 북한군은 오직 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태종의 아기와 아들을 가슴에 꼭 안은 부녀자도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1, 2, 3차의 학살 계획으로 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에게 “하나님, 내 영혼 받아 주세요!”, “이 나라와 교회와 가족을 도우소서.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는 기도를 꼭 하라고 서로를 격려했다고 한다.

살아남은 사람 8명(성인 5, 영아 3)은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스러움으로 다시 전도를 시작하였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학살당하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교회에 올까하는 의심은 뒤로하고 오로지 순교적 신앙으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셨다. 그리고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1955년에는 131명의 성도로 교회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이번 온비아 수련회는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이었다. 사실 이번 수련회에는 학생들이 스테반의 순교 장면을 미리 연습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련회가 ‘찾사찾’으로 바뀌면서 연극을 발표할 기회조차 없었다.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왔다는 학생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이 준비했던 스테반의 순교 현장을 보게 되었다.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복음에 대하여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호서지방 순교지 탐방을 통하여 복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70여 년이 지난 지금, 아는 듯 모르는 듯 옥녀봉의 울긋불긋한 단풍은 또 한 철의 앞사귀를 그때처럼 우수수 떨어내며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기원하는 듯했다. 나에게 이들과처럼 ‘죽음을 앞에 두고 복음을 당당히 전할 수 있니?’라는 소리 없는 질문이 자꾸 메아리가 되어 대답을 재촉하는 듯 했다. 나 자신조차도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문으로 선뜻 대답 못하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글: 이현숙, 편집: 이경주)

BEE 소식



•11월 10일 필리핀의 부뜨완에서 첫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18분의 귀한 졸업생들이 귀한 우리의 동역자로 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